

피그마 특강 2일차 (01.15)

Figma 기본 툴 및 단축키 정리

1. 주요 단축키

- **Shift + Ctrl + O: X-RAY 기능**
 - 디자인 요소의 레이아웃이나 툴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.
- **/: 대화 기능**
 - 작업 중 협업자와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실시간 논의 가능.
- **Shift + S: 섹션 생성**
 - 페이지를 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작업 영역을 구분할 때 유용.
- **F: 프레임 생성**
 - 화면 디자인의 기본 단위. 모바일, 태블릿, 데스크탑 등 크기별 프레임 생성.
- **C: 코멘트 추가**
 - 디자인 요소에 피드백을 추가하고 협업 시 효율적 사용.
- **R: 사각형 그리기**
 - 기본 도형인 사각형을 빠르게 생성.
- **O: 원 그리기**
 - 원형 도형을 쉽게 생성.
- **L: 선 그리기**
 - 직선을 빠르게 추가 가능.
- **T: 텍스트 추가**
 - 텍스트 상자를 생성하여 원하는 텍스트 입력.
- **I: 스포이드 도구**
 - 특정 색상을 추출하여 적용.
- **P: 펜 도구**
 - 자유로운 벡터 작업 가능.

- **Z: 확대/축소**
 - 특정 영역을 확대하거나 축소.
-

2. 오토 레이아웃 기본 기능

- **오토 레이아웃 추가 (Shift + A)**
 - 선택한 요소를 오토 레이아웃 그룹으로 전환.
 - 요소 간 간격 및 패딩을 설정해 정렬을 자동화.
 - **주요 기능:**
 - **정렬:**
 - 콘텐츠를 왼쪽, 중앙, 오른쪽 등으로 정렬 가능.
 - **간격 조정:**
 - 요소 간의 간격을 숫자로 설정.
 - 간격 변경 시 디자인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적용됨.
 - **패딩:**
 - 그룹의 내부 여백(상하좌우)을 개별적으로 설정 가능.
 - **채우기 방향 설정:**
 - 수평(가로) 또는 수직(세로)으로 콘텐츠가 배치되도록 조정.
 - **반복 복사:**
 - 와이어프레임 또는 반복적인 UI 요소를 효율적으로 생성.
 - **예시 활용:**
 - 버튼 디자인: 텍스트 크기에 따라 버튼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설정.
 - 카드 레이아웃: 동일한 간격과 정렬로 여러 카드 배치.
 - **추가적인 오토 레이아웃 장점**
 - **오토 레이아웃**을 사용하면 프레임안에 있는 요소들이 지정한 방향, 정렬, 간격 여백에 따라 정렬된다.
 - 가로 및 세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, 내용의 프레임크기를 맞추거나 전체 프레임에 맞게 필을 채울 수 있다.
-

3. 최소 단위 시스템 (8단위 시스템)

- **설정 이유:**
 - **일관성:**
 - 디자인의 마진, 패딩, 간격 등 요소 간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깔끔하고 체계적인 디자인을 만들.
 - **반응형 디자인:**
 - 다양한 화면 크기에서 요소를 쉽게 조정 가능.
 - 8px 단위로 조정하면 해상도와 관계없이 디자인이 균형 있게 보임.
 - **효율성:**
 - 모든 간격을 8의 배수로 설정하면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, 협업 시 개발자와의 소통이 용이함.
 - **표준화:**
 - 많은 UI 디자인 시스템에서 8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하므로, 업계 표준에 맞는 디자인을 제작 가능.
 - **실제 적용 사례:**
 - 버튼의 여백: 8px 또는 16px.
 - 카드 간 간격: 24px(8의 배수).
 - 섹션 간 마진: 32px(8의 배수).
-